

#1711 콰인포퍼 원고

#1711 콰인 총체주의

\*글의 초반부에서는 뇌를 반으로 나눕시다. '내용에 대한 이해' + '글의 주제를 찾는 의식' 그렇게 초반부 독해에서 잡은 '어떤 느낌'에 입각해서 글을 읽는 것입니다.

\*초반부에 잡은 '어떤 느낌'에 부합하는 내용을 핵심정보, 그렇지 않은 내용을 '부가정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어떤 느낌: 초반에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 vs 콰인의 대립구도를 확인하고 매트릭스를 생성하고 이를 채우는 것을 독해의 목표로 삼자

[1-1]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그중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주장입니다. 지식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여기서는 무언가 잡아끌어갈 실마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1-2]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이 역시 단순한 정보의 나열입니다. 가설, 예측, 과학적 방법에 대한 정보를 깔아주며, 가설이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2-1] 하지만 콰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여기서 무언가 느낌이 들었어야 합니다. '이거 논리실증주의자,포퍼 VS 콰인 이렇게 대비되는 지문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손으로든 머릿속으로든 그 즉시 매트릭스를 생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리실증주의자,포퍼	콰인
가설 → 예측	가설 + $\alpha$ → 예측

(가설만 가지고 예측을 도출할 수 없으니, 당연히 무언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alpha$ 를 추가했습니다. 이제 독자는  $\alpha$ 가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해서 독해를 진행하면 됩니다.)

[2-2] 예를 들어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는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

→아주 가벼운 예시입니다. 매우 빠르게 스치듯 독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콰인의  $\alpha$ 를 찾는 중이거든요.

[2-3]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필요하다.

→여기선 철저한 감속이 필요합니다. 핵심정보가 나왔거든요.  $\alpha$ 에 대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매트릭스는 업데이트됩니다.

논리실증주의자,포퍼	콰인
가설 → 예측	가설 + 기존지식 + 조건 → 예측

[2-4]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재진술하는 문장입니다. 앞 문장에서 매트릭스를 형성했다면 스치듯 지나가야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완급을 조절해나갑니다.

[2-5]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보가 나왔습니다. 앞서 매트릭스를 참고하면,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매트릭스를 업데이트 해줍니다.

논리실증주의자,포퍼	과인
가설 → 예측	가설 + 기존지식 + 조건 → 예측
예측 실패 → 원인 알 수 있음	예측 실패 → 원인 모름

과인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등장했을 땐, 단순히 과인 뿐 아니라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 쪽에도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2-6] 이로부터 과인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역시 스치듯 지나가야합니다. 밑줄을 치고 싶다면 ‘총체주의’ 부분에 살짝 긁는 것으로 끝나야합니다. 앞선 부분에서 생각을 다 끝내고 왔기 때문입니다.

[3-1]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글이 점점 진행되면서 논리실증주의자+포퍼 vs 과인 구도로 설계했던 매트릭스가 이 글의 주제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낍니다. 여기서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가 명제를 각각 구별하는데, 학생들은 이때 과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과인 항목을 채우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논리실증주의자,포퍼	과인
가설 → 예측	가설 + 기존지식 + 조건 → 예측
예측 실패 → 원인 알 수 있음	예측 실패 → 원인 모름
분석명제, 종합명제 구별	?

[3-2] 그러나 과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이 부분에서 매트릭스를 채우고 들어갔어야 합니다.

논리실증주의자,포퍼	과인
가설 → 예측	가설 + 기존지식 + 조건 → 예측
예측 실패 → 원인 알 수 있음	예측 실패 → 원인 모름
분석명제, 종합명제 구별	구별X

→동시에, 뒷 부분의 논증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힘을 뺄 수 있죠. 과인이 두 명제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핵심정보를 얻어 냈으니, 그에 대한 논증은 자연스럽게 부가정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뇌 정지가 와서 혼란스러워했지만, 전혀 고민할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힘을 빼고 읽기에, 완벽하게 독해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 부분은 고교 수준의 지식으로는 완벽한 독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3]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따라서 과인은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굳이 이해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지만, 최소한의 독해 과정을 첨부하겠습니다.

1단계	(동어 반복 명제). (환원 가능 명제) :분석명제. 경험과 무관하게 판단
2단계	환원 가능성 → 분석명제
3단계	동의적 표현 → 환원 가능성
4단계	대체 가능성 + 필연성 개념 → 동의적 표현
5단계	소결론: 대체 가능성 + 필연성 개념 → 동의적 표현 → 환원 가능성 → 분석명제
6단계	분석명제 → 필연성개념
7단계	최종결론: 필연성 개념 → 분석명제 → 필연성 개념 순환하네?

[4-1] 콰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가 분석명제와 종합명제를 구분했고, 콰인은 이를 부정했습니다. 이때 콰인이 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시에 매트릭스를 업데이트해줍니다.

논리실증주의자,포퍼	콰인
가설 → 예측	가설 + 기존지식 + 조건 → 예측
예측 실패 → 원인 알 수 있음	예측 실패 → 원인 모름
분석명제, 종합명제 구별	구별X 주변부 지식, 중심부 지식

[4-2]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그러나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와 다르게, 구별한 것들을 다른 지식이라 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매트릭스도 업데이트 해줍니다.

논리실증주의자,포퍼	콰인
가설 → 예측	가설 + 기존지식 + 조건 → 예측
예측 실패 → 원인 알 수 있음	예측 실패 → 원인 모름
분석명제, 종합명제 구별	구별X 주변부 지식, 중심부 지식 구별X

→이때 감이 좋은 학생들은 구별이 안된다는데 ‘왜 따로 제시하지?’ 와 같은 본질적인 의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걸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정확하게 예측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측을 굳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이 글을 처음 읽는 도중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언어로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을 재능을 가진 학생이니 뿌듯해하셔도 됩니다.)

[4-3]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콰인의 주장입니다. 다만 독자의 머릿속엔 계속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 칸에 넣을 항목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 칸에 넣을만한 내용이 잡히지 않습니다. 콰인 혼자 외딴섬처럼 말하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매트릭스를 채우기가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읽고 매트릭스를 즉각 채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4-4] 그리하여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의문이 해결됐습니다. 여태까지 콰인이 했던 말들은 단 한 항목을 위해서 했던 말들입니다.

논리실증주의자,포퍼	콰인
가설 → 예측	가설 + 기존지식 + 조건 → 예측

예측 실패 → 원인 알 수 있음	예측 실패 → 원인 모름
분석명제, 종합명제 구별O/ 종합명제는 수정O	구별X
	주변부 지식, 중심부 지식:구별X/ 수정O
지식의 변화: 누적O	지식의 변화: 누적X

→과인 부분의 내용을 채우는 건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종합명제만 수정 가능하다는 점’, 앞서 글 초반에서 제시한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지식은 누적가능하다는 점’을 채웠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 사고의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 항목에서 ‘종합명제가 수정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추론’
1단계	과인의 주변부 지식, 중심부 지식 모두 수정가능하네?
2단계	그럼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어떻게 될까?
3단계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주변부와 중심부를 구별하지 않았지만, 분석명제와 종합명제가 거기 대응하네
4단계	그러면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종합명제만 구별이 가능하겠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 항목에서 지식의 변화가 누적된다는 것에 대한 추론’
1단계	과인은 지식의 변화가 누적된다고 안하네?
2단계	그럼 포퍼는 어떻게 할러나?
3단계	아 1문단에서 깨네는 누적된다고 했지!

[5-1]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나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과인 이론의 특징입니다. 동시에 포퍼 항목을 채우려고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반박을 피하지 못하러나?’ 정도의 의문만 가져도 좋습니다. 하지만, 의문을 확정지을 마땅한 근거가 부족하니 비워둡니다.

[5-2] 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와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아까 글을 읽으면서 감각이 좋은 학생들은 눈치챘을 것이라 부분입니다. 과인의 단점입니다. 이 역시 매트릭스를 채우긴 애매해 보이고 그냥 과인의 특징이라 처리하면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마학영